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1강 요한복음이란?

I. 들어가는 말

II. 요한복음의 중요성과 특징

1. 먼저, 교회에 미친 요한복음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1)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애복음서'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요한복음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독하는 복음서입니다.
2) 초기 교회에서 가장 큰 신학 논쟁이었던 예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는 요한복음에 근거하여 해결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는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다.'이었습니다. 예수가 완전한 신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예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18; 20:28)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3)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 사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각 신성이 있으면서 구별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10:30; 16:13-15).
4) 요한복음에는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 다음으로, 요한복음은 여러 특징이 있는 복음서입니다.
1) 요한복음은 이해하기 가장 쉬운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그 사상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린이 복음서'라고 하면서 동시에 '수수께끼'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2) 요한복음서는 영적 어린아이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복음서임과 아울러 성숙한 신자에게 큰 자양분을 주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어린아이와 코끼리가 같이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고도 합니다.
3)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말한 대로 요한복음은 "영적(spiritual) 복음서"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이 일상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만 기록했다거나, 역사적 사실 기록이 아닌 그 의미만을 기록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심오한, 깊은 성찰이 있는"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개인과 만날 때, 또 어떤 주제를 다룰 때 한 번에 매우 깊고, 심오하게 다룹니다.

Ⅲ. 요한의 눈으로 보는 요한복음(Let John be John!)

1. 우리말로 요한복음이라고 부르는 신약성서에 포함된 책의 본래 제목은 '요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 말은 이 책의 내용인 복음은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며, 요한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정경에 있는 사복음서는 모두 이런 식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즉 마태에 의한 복음, 마가에 의한 복음과 누가에 의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경 이외의 복음서인 외경복음서, 예를 들면 한 때 대중매체의 주목을 받았던 유다복음서는 책 제목 자체가 유다에 의한 복음서가 아니라 '유다의 복음서'(The Gospel of Judah)로 되어 있습니다. 즉 외경 복음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 저자의 사상을 전파하려는 의도가 더 큰 것입니다.
 -이에 반해, 정경 복음서에는 책 안에 저자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책 제목은 원래 저자가 책 자체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사람들이 저자에 대한 증언에 의해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각 복음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을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책을 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요한복음서는 사복음서 중 하나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균형 있게 기록한 책입니다(행 1:1).
 -외경 복음서 중에는 예수의 말씀만 있는 것도 있고(예, 도마복음서), 수난사화만 있는 것도 있고(예, 베드로의 수난복음서), 어린 시절 이야기만 있는 것(도마의 유아복음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을 번갈아 배치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의 표적과 표적에 대한 강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共觀福音書)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는 것이지만, 사실 같은 관점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관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나름대로 독특한 관점으로, 자신과 독자의 상황에서 자신의 문체로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는 독특합니다.
 -그런 독특성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공관복음서는 상호 매우 유사합니다. 1) 가령 예수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그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하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끝맺는다는 것, 2)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 3)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4. 이에 비해,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묘사나 신학적 관심이 공관복음에 비교하면 독특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비유 가르침이나 축귀에 대한 보도도 없습니다.
 -예수는 사역의 시작부터 전지(全知)한 인물, 혹은 신적 존재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주도합니다

(2:24-25).
 -또 문체도 매우 독특해서 비록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의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여 요한의 신학적 관점을 형성해냈기에 그 자료를 정확히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그 점에서도 요한복음은 색다릅니다.

4. 우리가 요한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러한 독특한 요한의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 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의 가르침과 행적은 어떤 것인지를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목적과 신앙적 관점을 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요한복음을 기술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예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의 렌즈나 바울의 렌즈로 보지 말고, 요한 자신의 렌즈로 본문을 보며 그의 목소리 자체를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요한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해서 “요한을 요한되게 하라!(Let John be John!)라고 했습니다.

5.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글을 읽기 전에 이미 그 글에 대한 선입견 혹은 전 이해를 알게 모르게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글쓰기 방식, 내러티브의 구조, 그의 사상 체계 등에 유의하면서 그가 예수와 그의 말씀과 행적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열린 마음으로 꼼꼼히 찾아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땅을 밟아 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좋은 가이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Ⅳ. 요한복음의 흐름과 구조

1. 다른 정경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장절로 끊어서 읽기보다는 단번에 쭉 읽어 나가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의 행적과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단락과 단락 사이에 어떤 이음새를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옷 안쪽의 바느질된 이음새 부분을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은 “또”(그리고, and)라는 말로 단락을 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는 이러한 이음새를 좀처럼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음새는 있는데 요한복음서의 이음새는 마치 옷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느낌입니다. 비록 이음새가 있지만, 큰 이음새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옷을 형성하듯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재미있게도 요한복음의 바깥쪽의 큰 이음새는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옷의 이음새를 기준으로 옷의 각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듯, 요한복음은 프롤로그(1:1-18)라는 분명한 색채를 시작으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는 문학적 장르 상 산문이 아니라 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본문에서 전개될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에필로그(21장)라는 또 다른 색채를 통해 요한복음의 본문을 끝맺고 있습니다. 분명 바로 앞에서(20:30-31) 본론이 끝났음에도 요한은 새로운 내용을 시작으로 또 다른 끝을 맺고 있습니다.

3. 이제 옷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두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그리스도론적 질문에 답하는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19-12장). 이 부분에서 예수는 표적을 행하고,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특히 불신앙으로 대응한 사람들은 집단으로 나오는데,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당시 유대교 당국자들이나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은 예수에 대한 표적 때문에 신앙으로 나왔으나 이후 유대인들의 박해에 못 이겨 중간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숨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일차적으로는 그의 표적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 부분을 두고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4. 두 번째 부분(13-20장)은 예수가 대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예수의 사명과 앞으로 행할 제자들의 사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의해서 형성될 교회에 대해서도 말한다. 또한 그는 교회 시대에 제자들을 인도할 보혜사 성령에 대해 계시하면서 세상의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나갈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그들의 소명을 수여합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과정을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고백하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구조 한눈에 보기

1. 프롤로그(1:1-18)
2. 표적의 책(1:19-12:50)
 1) 예수 소개하기(1:19-51)
 2) 예수의 표적과 계시(2:1-22)
 3) 사람들과 호의적으로 만나는 예수(2:23-4:54)
 4)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예수(5:1-10:42)
 5) 영광의 시간을 향해 전진하는 예수(11:1-12:50)
3. 영광의 책(13:1-20:31)
 1) 최후의 만찬장의 예수(13:1-30)
 2) 예수의 고별 설교(13:31-16:33)
 3) 예수의 고별 기도(17:1-26)
 4) 예수의 수난(18:1-19:42)
 5) 예수의 부활(20:1-31)
4. 에필로그(21:1-25)

Ⅳ.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정황

1. 모든 책에는 기록 목적과 정황이 있게 마련이듯이, 요한복음도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2.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독립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나오지 않고 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보조 인물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1:8-9, 20, 30; 3:28, 30), 기록 당시 성행했던 세례 요한파를 억누르기 위해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 기록의 간접적인 정황은 될 수 있어도 기록 목적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요한은 세례 요한을 독립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은 것뿐이지, 그를 부정적 인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유대인들(특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혐오감에서 기록되었다고 주장합니다(5:46-47; 7:19, 24; 8:15, 24, 34, 41, 44, 47, 55). 특히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쓴 경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연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부분도 많고(4:22; 11:9, 31, 33, 45; 12:9, 11), 또 요한복음 내러티브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반대했다기보다는 불신앙 집단을 반대한 것입니다.

4.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은 기독교 내부 집단의 경쟁 관계에서 요한파가 다른 집단을 반대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주장합니다. 요한복음 내러티브를 읽어보면 요한은 애제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신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도 요한복음 기록 정황에는 해당하여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5. 요한은 20:31에서 기록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기록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의 메시아 즉 신적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이것을 읽는 독자가 그것을 믿어 지금 이 땅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6. 우리는 본문을 다룰 때, 그 신적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 또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V. 요한복음의 주요 주제

1. 예수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의 어떤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 자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 요한이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人子),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고, 예수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천명한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양의 문, 참 포도나무, 부활과 생명 같은 말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힘이 없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아들로서 당당하게 그의 나라의 왕으로서 수난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요 18-19장)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항상 그를 아버지로 부르는 그 관계에서 예수의 본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2. 영생

요한복음 내러티브의 본 주제가 예수라면, 예수가 행하는 말씀의 주제는 영생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얻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영생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파송한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으로서의 참살이입니다.
-요한은 예수가 그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세상에 왔다고 말합니다(10:10). 그 영생을 얻는 방법도 단순하다.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낸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17:3).
-다시 말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3:16). 그것은 하나님을 창조자 아버지로, 예수를 그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와 올바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그 관계를 맺을 때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지속한다는 면에서 그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비록 그 영생을 완전히 맛보는 것은 예수가 재림하는 때일지라도(요일 3:1-3), 신자는 지금 여기에서 그 영생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 주요 신학적 주제들

비록 요한이 겉으로 두드러지게 말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핵심 교리가 되는 주제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1) 삼위일체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모두 신적인 존재이며, 상호 내주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1; 14:16; 15:26).

2) 교회론: 요한복음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가 부활 후에 제자 공동체의 형성을 꿈꾸고 있던 것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17:20-23).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그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열두 제자이든, 여성이든,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종말론: 예수는 분명히 특정한 미래의 시간에 재림할 것이지만, 예수와 함께 하는 그 영생의 축복 혹은 그것이 없는 심판은 이미 이 땅에서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3:18; 5:24).

4) 윤리: 이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직접 주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 사랑과 연대라는 요한복음의 정신을 따라가면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상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VI. 요한복음의 현대적 적용

1.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영원한 진리 중 하나는 예수 중심성일 것입니다.
 -복음은 부자 되는 것에 관한 것도, 효도하는 윤리도 아닙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복음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성전과 포도나무와 양(羊) 무리를 대표합니다. 예수는 모든 신자가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기도 합니다(6:48).
 -예수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기도 하며(6:14), 곧 성전이자(2:21) 교회입니다(10:11; 15:1).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길이며 진리이고 생명입니다(14:6).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복음의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고 오용될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그것에 항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예수와 관계되지 않은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요한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 중 또 다른 하나는 계급과 신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 한국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요한복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차별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열두 제자와 일반 제자의 차별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만 있을 뿐이다.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에서 성장한 한국 교회 안에는 여전히 직분이 서열로 인식되고, 남녀차별

이 존재하고, 경제력이 낮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애와 우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VII. 나가는 말

1. 오늘은 요한복음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습니다.

2.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1-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나침반 바이블 BIBLE